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 훨훨 날아오른다 작가, PD, 배우 모든 역량 결집한 하반기 최고 기대작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가 10월 5일(월) 첫 방 송된다. <육룡이 나르샤>는 조선의 기틀을 세운 철혈군주 이 방원을 중심으로, 여섯 인물의 야망과 성공스토리를 다룬 팩 션사극이다. <대장금>, <선덕여왕>, <뿌리 깊은 나무> 등 대 한민국 드라마에 한 획을 그은 김영현 작가와 박상연 작가가 공동 집필하며, <뿌리 깊은 나무>를 함께 작업한 신경수 PD 가 연출을 맡았다.

요즘 영화 <베테랑>, <사도>에서 연기력을 제대로 폭발시킨 유아인이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치밀하게 왕권을 도모 한 끝에 마침내 왕위에 오르는 이방원 역을 맡아 기대를 모 으고 있다. 또 김명민이 조선 건국 이념의 설계자이자 이방 원과 이념적 대척점에 서게 되는 정도전으로, 천호진이 절대 카리스마로 조선을 건국했으나 아들에 의해 아들들을 잃는 비운의 군주 이성계로 분해 한 치의 양보 없는 연기 대결을 펼친다.

그리고 변요한은 우연히 정도전과 얽히게 돼 고려흥망과 조 선건국의 중심에 서게 되는 삼한 제일의 검객 땅새(이방지) 로, 신세경은 땅새의 동생이자 이방원의 여인이 되어 훗날 태종비와 대립하게 되는 분이, 윤균상은 이방원을 도와 대업 을 완수하나 나중에 이방원을 섬기길 거부하는 조선 제일검 무홀 역을 맡아, 여섯 마리 용의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준다. 탄탄한 대본과 역대급 연기파 배우들의 출연, 압도적인 스케 일과 묵직한 주제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육룡이 나 르샤>는 창사 25주년 특별기획답게 일찌감치 촬영에 들어가, 10월 5일(월) 시청자들에게 첫선을 보일 그날을 기다리며 만 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내로라하는 스포츠 스타들도 두 손 든 철인 3종 정글생존기 <정글의 법칙 in 니카라과> 첫방부터 타사 특집 압도하며 건재 과시!



병만족의 21번째 생존기 <정글의 법칙 in 니카라과>가 9월 11일(금) 첫 방송됐다. 이번 <정글의 법칙>은 '스포츠 스타 특집'으로, 현주엽(농구), 김동현(격투기) 등 스포츠 스타와 조한선(축구), 잭슨(펜싱), EXID 하니(철인 3종), 최우식(클라이밍) 등 학창시절 스포츠를 했던 스타들이 출연한다. 스포츠 스타들로 멤버를 구성한 까닭은 역대 최고 난이도의 미션을 부여하기 위한 것.

김진호 PD는 "시청자 의견에 늘 강한 사람, 운동선수, 해병대 등이 가면 좋겠다는 의견 이 많아 이번에 특별히 모셨다. 이번 시즌은 정글에서 스포츠와 생존을 접목한 아주 재

미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스포츠 스타들과 류담, 김태우, 엔(빅스), 민아(걸스데이)는 척박한 바위와 절벽, 차가운 계곡물이 거칠게 흐르는 니카라과 소모토 협곡을 2박 3일 동안 거슬러 올라가며 마라 톤, 사이클, 수영을 연이어 실시하는 철인 3종 생존을 펼친다.

방송에 앞서 9월 9일(수) 목동 SBS방송센터 13층 SBS홀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현주 엽은 "정글은 직접 가는 것보다 TV로 보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한선은 "정 글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현재의 생활을 감사하게 생각하게 됐다. 다시 부르지 말라"고 말해 스포츠로 잔뼈가 굵은 이들에게도 정글에서의 철인 3종 생존기가 녹록지 않았음 을 짐작케 했다.

첫 방송에서 보여준 소모토 협곡의 아름다움은 기대 이상이었다. 인공의 때가 묻지 않 은 거칠지만 아름다운 협곡은 정제되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주며 시청 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가장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 김동현은 큰소리만 칠 뿐 허당이었고, 새 침한 분위기의 하니는 의외로 털털한 매력을 보여주었다. 잭슨은 한 시도 실 새 없이 시 청자들의 웃음을 책임졌다.

21시즌까지 오는 동안 비슷비슷한 정글과 비슷비슷한 생존인 듯 싶지만 매년 색다른 정 글의 모습과 미션으로 차별화하는 <정글의 법칙>의 전략은 이번에도 적중했다. 첫방 시 청률 13.1%(닐슨코리아/수도권)를 기록, 타사의 특집 공세에도 굳건히 1위 자리를 지켰다. 21기 병만족이 타고난 체력과 승부욕, 환상의 팀워크로 극한의 도전을 펼쳐갈 <정글의 법칙 in 니카라과>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세대를 아우르는 추석특집으로 연휴 기쁨 배가시킨다

〈New 스타!킹〉, 〈어머님은 누구니〉, 〈심폐소생술〉, 〈나의 판타스틱한 장례식〉 등



올 추석 연휴에 방송될 특집 프로그램이 풍요롭게 마련돼, 오랜만에 모이는 가족과 친지들의 즐거움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추석특집 New 스타!킹〉(연출 심성민)은 혼자 보기 아까운 주변 사람들의 끼와 재주를 제보하면 재주꾼끼리 배틀을 벌이고, 우승 상금은 해당 제보자가 챙기는 방식이다. 제보자들이 직접 재주꾼들을 홍보하는 등 우승상금을 놓고 열띤 경쟁을 벌여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추석특집 어머님이 누구니〉(연출 박경덕)는 사유리, 로이킴, 추성훈, 김보성, 이해정, 이지현이 엄마의 레시피를 전수 받아, 고향의 명예를 걸고 요리 경연을 펼친다. 전현무, 최현석이 진행을 맡아 유쾌하면서도 전문적인 분석을 곁들인다.

〈추석특집 심폐소생술〉(연출 백승일)은 사장된 가요를 심폐소생사가 다시 부르면 청중평가단이 노래의 생사를 결정하는 새로운 콘셉트의 음악쇼이다. 박경림, 부활, 심센티, 공일오미가 자신의 곡 중에서 빛을 못 보고 사라져간 아까운 곡들을 의뢰하고, 옥주현, 김태우, 정인 등 최고의 가창력을 지닌 가수들로 구성된 심폐소생사가 노래를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가수 윤종신과 개그맨 유세윤이 진행을 맡았다.

드라마본부에서는 〈추석특집 단막극 나의 판타스틱한 장례식〉(극본 김은향, 연출 박선호)을 준비하고 있다. 뇌종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27살 여자가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삶과 화해하는 과정을 담은 드라마로, 경수진이 주인공 미수 역을 맡았고, 최우식이 경수진의 중학교 동창이자 페인트공인 동수 역으로 출연하여 세상에 대해 가시를 품고 살았던 미수에게 사랑의 의미를 깨우쳐준다.

인터뷰 이 사람

“나 역시 사춘기 자녀를 둔 엄마... 〈동상이몽〉이 큰 깨달음을 줬”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연출 서혜진 차장대우(제작본부 예능국)



지난 4월 25일 방송을 시작한 <동상이몽>이 꾸준히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9월 5일 시청률 8%(닐슨코리아/수도권)를 돌파했다. <동상이몽>은 사춘기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갈등을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 매회 눈물 속의 해피엔딩으로 감동을 주고 있다.

“또 관찰예능인가?”라는 비판 속에 시작했다.

관찰 형식이지만 일반인이 주인공인 것은 첫 시도였다. 가장 감정을 속일 수 없는 관계가 부모-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강렬한 감정들이 오고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극적인 드라마를 담을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극적인 감정이 '애증'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다양한 사연을 가진 출연자들이 나온다. 제보자는 어느 정도 되고,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

신청자와 SNS를 통해 찾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비율은 반반이다. 대상이 10대이다 보니 거의 소통창구를 SNS로 한다. SNS를 통해 아이들에게 쪽지를 보내고 답변을 받아 만난다.

일주일에 네 집 정도를 인터뷰 하는데 서울이나 경기권보다 지방에 사는 친구들의 고민이 다양하고 색깔이 달라서 지방친구들을 많이 출연시키려고 노력한다.

출연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들이 가진 걱정과 고민의 진실성이다. TV출연을 위해 거짓으로 이야기를 꾸며내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그것을 걸러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조작 논란도 있었다.

‘스킨십 아빠’편은 아빠가 제작과정에 어떤 조작도 없었고 오히려 너무 리얼하게 촬영이 진행되어 놀랐다는 인터뷰를 후속으로 하셔서 잘 마무리되었다. 아이의 고민을 진실되게 들으시고 많이 바뀌셨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좀 더 미묘하고 감정적인 문제로 아이와 부모가 갈등할 수 있다는 부분을 다루고 싶었는데 의도와 다르게 예민한 반응들이 있어서 놀랐다.

그 편을 거울삼아 일상에서 통용되는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냐, 아니냐를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제작팀에겐 고마운 사건이었다.

아이를 기르는 입장에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는지?

중3 아이가 있는데, ‘우리 집에 카메라를 달면 어떻게 될까?’란 생각을 많이 한다. 처음 파일럿을 촬영하면서 아이와의 대화법이 정말 일방적이라는 반응을 많이 했다. 항상 느끼지만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모두 어른들의 잘못이다.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세대에 대한 이해와 소통하려는 노력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동상이몽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다.

제작진 입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출연자는?

20회 출연자인 〈서른네 살 새아빠〉편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24살에 만난 6살 아이에게서 ‘아빠’란 말을 처음 듣고 아빠가 돼주기로 결심한 군인아빠의 책임감이 모두의 마음을 울렸다. 처음 VTR 시사할 때 눈물이 너무 나서 평평 울면서 회의했다. 멋진 아빠였다.

출연자들의 그 이후 모습이 보고 싶다. 계획이 있는지?

추석특집에 그동안 출연했던 모든 아이들과 부모님이 다 나온다. 출연 후 바뀐 생활, 재밌었던 에피소드, 장기자랑이 대방출된다. 기대하셔도 좋다

팀은 어떻게 꾸려져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턴작가 3명을 포함해 작가진이 12명이고, 연출팀이 12명이다. 야외팀은 총 3팀으로 돌아가고 보통 2박3일, 길면 3박4일 촬영한다. 매주 다른 이야기가 나와야 하기도 하고, 스튜디오 촬영이 일요일이다 보니 하루도 못 쉬고 돌아간다. 그래도 결과가 좋을 땐 위로가 된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관계를 더 확장시켜 사춘기를 벗어난 부모-자녀, 부부, 갑을관계까지 다뤄보고 싶다. 세상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생기는 갈등의 원천지이기 때문에 수많은 동상이몽이 존재할 것이다. 다양한 동상이몽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 더 노력하겠다.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시청자와 함께 파헤치는 스릴러게임

추악한 비밀이 숨겨진 미스터리한 마을로 초대합니다



〈마을-아치아라의 비밀〉이 〈용팔이〉가 떠난 10월 7일(수) 안방극장을 찾아간다.

‘작은 연못’이라는 뜻의 아치아라는 모든 면에서 보통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절도 이상의 범죄는 일어난 적도 없는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다. 이렇게 평화로웠던 마을에 영어 원어민 교사로 부임한 김소윤이 암매장된 시체를 발견하면서 마을의 위장된 평화는 깨지게 된다.

문근영이 발신인이 ‘아치아라’로 적힌 편지 한 통을 받고 운명처럼 아치아라 마을로 흘러들어오는 캐나다 교포 김소윤 역을 맡고, 비투비 육성재가 3번의 낙방 끝에 겨우 경찰의 꿈을 이룬 신출내기 순경 박우재 역을 맡아, 평화롭다 못해 단조롭기까지 한 마을이 숨기고 있는 추악한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마을-아치아라의 비밀〉은 연기력하면 더 말할 나위 없는 문근영과 가수, 배우, MC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라이징 스타 육성재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신은경, 김용림, 정성모, 온주완, 장희진 등 연기와 배우들이 가세하여 첫 회부터 스릴러 드라마의 매력을 한껏 선사한다.

〈케세라세라〉, 〈사랑도 돈이 되나요〉 등을 집필한 도현정 작가와 〈일지매〉, 〈아내가 돌아왔다〉, 〈대풍수〉 등을 연출한 이용석 감독이 의기투합한 〈마을-아치아라의 비밀〉은 10월 7일(수)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피노키오〉 ‘서울 드라마 어워즈’ 한류드라마우수작품상



〈피노키오〉(극본 박혜련, 연출 조수원)가 9월 10일(목) 상암 MBC문화광장에서 열린 ‘제10회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서 한류드라마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이종석, 박신혜 주연의 〈피노키오〉는 진실을 추적하는 사회부 기자들의 삶을 그린 드라마로,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쿠투도우에서 10억 뷰를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서울 드라마 어워즈’는 방송협회가 주최하고 SBS, KBS, MBC, EBS 방송4사가 후원하는 행사로, 한류열풍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 및 한국드라마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적 위치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는 48개국에서 212편의 작품이 출품돼 경합을 벌였다.

유사포교당 고발 최우철, 공진구 기자 ‘이달의 기자상’



보도국 탐사보도팀 최우철 기자와 SBS A&T 영상취재팀 공진구 기자가 한국방송기자연합회와 방송학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방송기자상(8월)’ 기획보도 부문을 수상했다. 최우철, 공진구 기자는 〈SBS 뉴스스토리〉를 통해, 노인들을 상대로 불교와 무관한 거짓 풍습을 선전하며 거액의 위폐 봉안비를 가로채는 유사 포교당 실태를 고발했다.

수출입은행, ‘희망TV SBS’ 아프리카 희망학교에 기금



9월 9일(수) 목동 SBS방송센터 20층 대회의실에서 이용모 SBS 사장,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가토가 체계 주한 케냐 부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희망TV SBS’ 아프리카 희망학교 기금 전달식이 열렸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13년 9월 SBS와 체결한 ‘개발도상국 지역사회개발 연계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SBS가 케냐 타라카 지역에 건립하고 있는 희망학교 건립 및 운영비용 2억 5천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다.

SBS는 2012년부터 5년간 총 100개의 ‘아프리카 희망학교’를 짓기로 하고, 현재 55개의 학교를 완공하고, 31개의 학교를 건립 중이다. 이번 한국수출입은행의 후원으로 케냐 카마란디 학교 아이들이 보다 좋은 학습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수졸업생은 상급학교 장학금도 받게 된다.

‘심폐소생술, 어렵지 않아요~’ 사원대상 교육 실시



노사협력팀 건강관리실은 9월 14일(월) 목동 SBS방송센터 13층 SBS홀에서 희망사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원들은 한국라이프세이빙 소사이어티에서 나온 강사의 지도에 따라 직접 실습을 해보기도 했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 발생 시, ①환자를 똑바로 눕히고, ②환자의 가슴팍에 양손을 겹쳐 올린 뒤, ③시술자의 팔이 수직을 유지하도록 체중을 실어 5cm 깊이로 압박했다가 힘을 빼는 행동을 1분에 100회 가량의 속도로 실시하면 된다.

또 SBS에는 1층 로비 주차장 쪽 회전문 옆과 5, 10, 15, 20층 사무동 자동출입문 옆에 자동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어, 필요 시엔 ①자동제세동기를 꺼내 초록색 버튼을 켜 뒤, ②스피커에서 지시하는 대로 패드를 환자의 가슴에 부착하고, ③지시에 따라 깜박거리는 주황색 버튼을 누르면 된다.

변영옥 간호사는 “환자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일단 119에 신고한 뒤, 심폐소생술-자동제세동기를 시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우리 프로그램은~

질문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한수진의 SBS 전망대〉



러브FM(수도권 103.5MHz)
월~금 오전 06:00-08:00

흔히 현재를 정보 과잉시대라고 말합니다. 종편 및 보도 채널의 등장으로 TV에선 하루 종일 뉴스가 흘러나오고 스마트폰에선 실시간으로 속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포탈의 언론화는 더 이상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며, SNS는 훌륭한 대체 미디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한수진의 SBS 전망대〉는 매일 아침 출근길 청취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타매체가 아닌 라디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말이지요.

〈한수진의 SBS 전망대〉는 인터뷰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각 매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성이지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힘은 여기서 발합니다. 육성은 활자화된 정보가 나타내지 못하는 것들을 담아냅니다. 인터뷰이의 감정과 태도, 정서 같은 비 활자적 정보들을 말이지요. 또한 진행자와 인터뷰이가 대화를 하듯 진행되는 인터뷰를 듣다보면 청취자들은 그 대화에 입회한 듯한 기분을 갖게 됩니다. 정치인이나 노동자에게나 똑같이 십 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악마의 편집도 없습니다. 세상사 모든 곳에 공정하게 마이크를 대는 것이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또한 〈한수진의 SBS 전망대〉는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일수록 정보를 읽어 내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정가 소식의 맥을 짚는 '정치 인사이드',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살피는 '법은 이렇습니다' 등 다양한 코너들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매일 진행되는 전문가 인터뷰 역시 세상을 달구는 이슈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실마리를 제시합니다.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되지 않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 흔히 뉴스의 선정성을 논할 때 언급되는 인용구입니다. 실제로 이 말은 유효합니다. TV와 스마트폰에는 '개를 문 사람'의 소식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개가 사람을 물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개를 물 때면 얼마나 기구한 사연이 있는 걸까요. 〈한수진의 SBS 전망대〉는 그 사연에 귀를 기울이는 방송이 될 것입니다. 질문에 질문을 더해 사안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조연출 유용준 PD(라디오센터 라디오1CP소속)

공연·전시

〈로미오와 줄리엣〉

세계적 안무가 레다가 선사하는 잊을 수 없는 감동



일시: 9월 12일(토)~10월 11일(일)
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6년 만에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프랑스 오리지널 팀이 한국을 찾았다.

셰익스피어의 원작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재창조한 〈로미오와 줄리엣〉은 2001년 프랑스 초연 당시 관객들의 뜨거운 찬사를 받으며 1년 동안 매진사례를 기록하였다. 'Aimer(사랑한다는 것)', 'Les Roi du Monde' 같은 주옥같은 넘버들은 뮤지컬 넘버들로는 이례적으로 음악 차트 1위를 휩쓸었으며, 파리공연 DVD와 관련 음반은 1억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 인기 음반에 주어지는 'Platinum Europe Award' 수상, 2005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베스트 뮤지컬'로 선정되는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정적인 음악, 역동적인 안무, 화려한 무대의 3박자를 모두 갖춘 뮤지컬로 평가 받는다. 불어의 리듬감과 부드러움이 그대로 느껴지는 시적인 노랫말에 팝, 록, 발라드, 테크노 등 여러 장르의 멜로디를 잘 녹여냈고, 프랑스 월드컵 개막식 안무와 연출을 맡았던 세계적 안무가 레다가 만들어 내는 역동적인 안무, 몬테규·캐플릿 가의 반목과 대립을 나타내는 극명한 색채 대비와 화려하고 거대한 무대 메커니즘이 한데 어우러져 〈십계〉, 〈노트르담 드 파리〉와 함께 프랑스가 자랑하는 3대 뮤지컬로 꼽힌다.

감각적이고 세련된 연출과 음악으로 프랑스 뮤지컬의 매력을 제대로 뽐어내는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 가을 국내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한다.

디지털 시청자와 소통하다

실시간으로 TV를 보지 않고, SNS를 통해서 방송에 대한 리뷰를 확인한 후에 방송을 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디지털세상에서의 소통이 점차 중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작진의 참여도 즉, 인게이지먼트가 중요해지고 있고, 이에 본방 제작 외에도 디지털 전략을 세우고 전용 콘텐츠를 기획하는 등 모바일 최적화를 고민하는 제작진을 소개하고자 한다.

시청자가 참여하고, 시청자가 홍보하는 〈힐링캠프〉



새 옷으로 갈아입은 지 한 달여. 〈힐링캠프〉에서 시청자는 이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스태프로 자리 잡았다. 연예인 MC가 게스트와 나눈 대화를 일방적으로 시청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시청자가 MC의 일원이 되어 게스트와 직접 소통하는 시청자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발전한 것이다.

MC를 지원하는 시청자들은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시청자 MC로 방송에 참여했던 시청자들은 그 느낌과 감동을 각종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공유한다.

이는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진정한 의미의 시청자 참여형 프로그램의 의미를 되살리는 동시에, 〈힐링캠프〉를 알리는데 큰 힘이 된다. 온라인을 통한 시청자 MC 참여 신청은 입소문을 타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제작현장 뒷이야기를 담은 'PD노트'를 모바일에 최적화되게 제작하여 홈페이지 및 포털 사이트를 통해 방송일 전에 홍보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PD노트'는 독창적인 콘텐츠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아, 인기 게시물의 경우 20~3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힐링캠프〉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되는 이유는 진정으로 시청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 SBS 콘텐츠허브 방송서비스팀

SBS 스포츠

손흥민 데뷔전, 시청률 2% 돌파 - 2015/16 EPL 역대 최고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로 토트넘에 새 동지를 둔 손흥민이 시청률 기록도 다시 쓰고 있다.

지난 13일(일) 밤 9시 20분부터 SBS스포츠에서 생중계한 2015/16 EPL 5라운드 선덜랜드와 토트넘의 경기는 2.061%의 시청률을 기록, 기성용이 지난 시즌에 세운 역대 최고시청률을 넘어섰다. 이적 후 처음 선발로 뛴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62분을 소화했으며, 팀은 1-0으로

시즌 첫 승을 수확했다.

과감한 슈팅을 시도하는 등 팬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선사한 손흥민은 앞으로도 EPL시청률 견인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이적용의 소속팀인 크리스탈 팰리스, 기성용의 소속팀인 스완지 시티 등과 코리안 더비를 앞두고 있어 더욱 기대감을 높인다.